

황금거북이

매년 같은 시기에 대륙사이에 있는 작은 섬에서 각 나라의 동물과 요정들이 처리해야 할 중요한 문제들을 상의하고, 회의를 개최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약간 흐린 아침에 아프리카에 있는 작은 나라의 대표로 참가한 뱀이 “나는...”하고 말을 시작하였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만” 그리고 그는 우쭐하여 군중을 둘러 보았다. “지금?”하며 이집트의 악어가 하품을 하면서, 회의휴식 시간에 잠을 자기 위해 몇 가지 유용한 의견을 제출할 준비를 하였다. “지금 우리가 협의해야만 하는 문제는...” 뱀은 웅성거리는 소리에 동요되지 않고 계속 말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국민들 중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몇몇 사람만이 두 가지 이상의 언어를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결코 일반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 번 이러한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애써 피해 왔었지만, 또 다시 이 문제에 부딪힌 동물들은 (해답을 모르는 문제에 대해 심사숙고 하는 것은 불유쾌한 것이었으므로) 발로 바닥을 긁거나 웅성거리며 동요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아일랜드의 요정이 신경질적으로 물으면서 황금냄비 위에 앉기 위하여 그의 황금냄비를 뒤집어 놓으며 말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경제사정 때문에 그 안에는 단추 하나 밖에 없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항상 잘 해결해 오지 않았나요?” - 스코틀랜드 산악지대의 대표인 양은 감기에 걸렸었던 네시를 대변해서 말하기를 “그렇지 않아요.”라고 주장하였다. “우리는 중요한 소식을 다른 이웃들에게 전달할 수 없습니다. 열대우림의 코알라들은 그 숲의 다른 곳이 불에 탔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무도 어류에게 석유오염이 밀려 온다는 것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류는 다른 나라로부터 유발된 수질오염 때문에 죽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를 개최하는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들의 의제에 대해 논의해야 하는지 매년마다 해결해야만 합니다. 당신은 이런 상태를 잘 해결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의 말을 강조하기 위해 다시 소리 높여 여러 번 말했다.

몇몇 게으른 동물들이 경험이 없는 양에 대해 짜증스러움이 생겨서인지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가 갑자기 아라비아의 사자가 결심한 듯 앞으로 나왔다. “우리 모두는 사자

의 말을 사용해야 해요”라고 소리치며, 그는 앞발을 치켜들어 과시하듯 그의 발톱을 바라 보았다: “사자는 우리 중에서 가장 강하고, 가장 빠르고, 가장 위험한 존재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것은 강한 것이 이긴다는 자연법칙이기도 하지요. 그러면 우리들의 문제는 해결된 거예요. 모두 사자가 쓰는 언어를 배우고, 서로서로 모든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오 그것은 아니예요,” 라고 도마뱀이 대답하였다. 어디서 그가 왔는지 그들 중 아무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다. “우리의 도마뱀 언어를 사용하는 게 좋아요. 도마뱀은 가장 오래된 계보를 가진 생물체이예요. 도마뱀은 아직 공룡에서 유래하였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수많은 전통으로부터 알고 있어요.”

동물들의 무리에서는 동의하는 웅성거림이 일어났고, 도마뱀은 우쭐대며 사자를 경멸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왜 나의 언어는 안 되는 거죠?”라며 시끄러움을 압도하기 위해 큰 목청으로 소리치며, 코뿔소가 옆으로 비켜 서자, 토끼가 출현하였다. “우리는 매우 번식력이 좋아요. 토끼 나라의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하이에나가 비웃자, 얼룩말이 말굽으로 하이에나의 입을 걷어 찼다. “나도 역시 아주 번식력이 좋아요. 모두 우리 쥐들의 언어에 찬성하는 거죠.” 쥐가 매우 조심스럽게 말하였다. “그럼 우리도!” 라고 구렁이가 영양과 동시에 외쳤다. “우리 표범도 빠질 수 없지...”라며 표범이 으르렁거렸다.

각각의 동물과 각 나라들이 모두 자신들의 언어를 모두가 배우는 언어로 내세우려고 하는 것과 또한 그들의 입장이 서로 단 한치도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른 나라의 입장을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되었다.

어떤 나라도 대표하지 않고 단지 섬에 살고 있던 작은 거북이는 이 소란을 듣고는, 모임이 있는 군중쪽으로 천천히 기어오기 시작하였다. 무리에 도착한 거북이는 근처에 있는 가장 높은 바위를 찾아 바위 꼭대기까지 기어올랐다. “조용!” 어떤 거대한 포효가 동물들을 전율하게 만들었고, 갑자기 그들은 모두 하나의 줄로 이어진 것처럼 큰 돌 위에 있는 작은 지점을 응시하였다.

거북이는 만족스럽게 웃으며 그의 큰 목소리에 스스로 흐뭇해 했다. “내 생각에는...,” 이라며 거북이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을 시작하였다. “나는 우리들의 문제에 대한 한 가지 해결책을 갖고 있습니다.” 하이에나가 다시 걷어차이지 않도록, 부상당한 그의 입을 보호하기 위해 앞발로 입을 가리며 다시 웃었다.

“왜 새로운 말을 만들지 않는 건가요?” 바위 위의 거북이가 계속 말을 이었다. “왜 세계의 모든 생물들을 위해 쉽게 배우고, 쉽게 말 할 수 있는 언어를 새로 만들지 않는 건가요? 나라마다 다르지 않고, 누구나 선호하는 언어를?” 거북이는 말 없이 자신을 바라보는 바위 아래에 있는 동물들을 둘러보며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를 희망하였다. “그럼 어떻게...?”라며 사자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이 언어를 만들어야 하는데?”하며 포효하였다. 거북이는 모임에 천천히 오는 도중에 그것에 대해 신중하게 심사숙고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앞발을 자신 있게 움직여 걸어 나왔다. “내가 당신들에게 그것을 설명해 주지요”하고 거북이는 설명을 시작하였고, 몇 시간동안 계속 얘기하였다. 거북이가 새 표준언어에 대해 더 많이 설명할수록, 더 많은 동물들이 그 제안에 수긍하였다.

“훌륭해!” 라고 악어가 말하였다. 사자는 “멋있어!” 라고 논평하였다. 아일랜드의 요정이 “우리는 거북이에게 보답을 해야만 해요” 라고 말하자 다른 생물들도 “맞아요” 라고 동의하였다. “그런데 어떻게 보답을 하죠?”- “그건 내가 할게요” 라고 군중 속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들렸고, 미국의 헐리우드 요정이 거북이가 웅크리고 있는 바위 위쪽으로 뱅뱅거리며 날아왔다. 요정은 그의 마술지팡이를 들어올리고, 몇 마디의 주문을 외우자, 황금비가 새로운 언어의 발명자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파문을 때까지 그의 몸 위로 쏟아졌다.

“이제 우리는 항상 당신을 우리의 위대한 은인으로 생각할 것이며, 당신은 모든 회의에 참석할 수 있어요”라고 요정이 설명하였다. 거북이 아래에 있는 군중들은 박수갈채를 보냈다. 요정은 “그래 맞아”라며 몸을 굽혀 예의를 표한 후, 원래 있었던 본인의 자리로 돌아갔다. 바위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거북이는 그 스스로가 모든 것을 아주 만족스럽게 한 것을 생각하며 아주 환하게 웃었다.

2003년 6월 Katharina von Radziewsky 의해 쓰여진 어떤 실화. 정혜숙 번역.